

# 독신남, 화려한 싱글인가?

## - 남성단독가구의 경제상태 진단 -

차 경 욱(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I. 서 론

통계청에서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80년에 전체 가구의 4.8%를 차지했던 1인 단독가구 비율은 1990년 9.0%, 1995년 12.7%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총 222만여 가구에 이르러 전체 가구의 15.5%를 차지했다. 불과 20년 사이에 1인 단독가구의 비중이 3.2배 이상 높아져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2020년이 되면 1인 단독가구가 389만여 가구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21.5%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통계청, 2002).

1인 단독가구의 증가 추세는 혼인을 감소 및 초혼 연령 증가에 따른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 이혼율 증가에 따른 이혼 독신가구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하여 현재 비혼(非婚)의 상태, 즉 법적 배우자가 없는 상태의 가구를 독신가구라고 하며(유영주 외, 2000), 독신가구의 증가는 1인 단독가구 증가 원인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독신가구와 1인 단독가구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적 배우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거주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공유하지 않는 가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의 전 단계로 별거를 선택하여 상당히 장기간 동안 단독가구를 형성,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최근에는 소위 기러기 가족이나 주말부부 등과 같이 일시적 별거로 인해 단독가구가 형성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다시 인용하면, 총 222만 4천 가구에 이르는 1인 단독가구 중에서 43%는 미혼 독신이었고, 35%는 사별 독신이었으며, 12% 가량은 배우자가 있으나 별거 중인 단독가구, 그리고 10% 가량은 이혼 독신이었다(통계청, 2002).

독신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미혼 독신에 초점을 두어 왔다. 미혼 독신이 전체 단독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도 하거니와, 결혼을 하지 않고 소위 '싱글'의 삶을 즐기려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심영, 2003). 특히 독신을 선호하는 성향이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실제로 25-34세의 미혼 여성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미혼 독신 여성들은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답한 비율이 남성은 16%인데 반해, 여성은 38%로 2배 이상 높았고, 또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고 있지 않은 미혼 남성은 30%인데 반해 여성은 52% 이었다(국민일보, 2004년 8월 25일자). 이렇듯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

거나 미루는 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와 이에 따른 경제력이 향상이 큰 몫을 했고, 연쇄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야기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독신 여성의 증가는 결국 비자발적(involuntary)으로 독신이 되는 남성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부터 2000년 까지 이루어진 5차례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 단독가구의 증가율이 여성 단독가구의 증가율 보다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수로는 여성 단독가구가 남성 단독가구수 보다 항상 많았지만, 그 증가율은 1995년 까지 남성 단독가구가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20년 사이에 여성 단독가구는 4.2배 증가한데 반해, 남성단독가구는 5.9배 증가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1인 단독가구 중 42.5%(94만 5천명)가 남성 가구이고, 나머지 57.5%(127만 9천명)가 여성가구이다(통계청, 2002). 미국의 경우, 2000년 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성인 중 결혼을 한 사람은 59%에 불과하고 미국 전역의 가구 중 26%가 독신가구이며, 여성 독신자 수는 1천 550만 명, 남성 독신자 수는 1천 180만 명이었다(U.S. Census Bureau, 2002). 영국에서는 독신자의 수가 최근 30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했는데, 특히 남성 독신자 수는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5년 10월 27일자). 이처럼 우리나라 남성 독신가구의 규모나 증가율을 볼 때, 그리고 서구 선진국의 추세를 볼 때, 남성 독신가구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장년층 독신 남성들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고 독신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과거에 가족을 위해 저축하던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했으며, 독신 남성들이 시장경제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매일경제, 2004년 8월 31일자). 그러나 영국에서 25~44세 독신자 1,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55%는 독신으로 살면서 집세와 각종 비용의 부담이 커져서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남성 독신자들은 여성 독신자들에 비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덜 행복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연합뉴스, 2005년 10월 27일자). 우리나라 1인 단독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남성의 69%, 여성의 47%가 정규 혹은 비정규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 독신이 여성 독신 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20대와 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남성 독신에 비해 여성 독신이 일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단독가구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대 79%를 정점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이 감소하여 60세 이상에서는 29%로 나타났다(통계청, 2002). 때문에 노인 단독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그들의 복지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성지미·이윤정, 2001; 심영, 2000; 이윤정·김순미, 2004; 여윤경, 2003).

이렇듯 남성 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생활은 그들의 연령이나 직업, 개인이나 가족이 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상태는 가구의 생활문화 및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 단독가구의 경제상태를 진단함으로써 그들의 현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변화의 움직임을 예측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여성 단독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이의 비교 집단으로 남성 단독가구를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 단독가구 그 자체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성 단독가구주의 연령대와 혼인상태(미혼, 이혼, 별거, 배우자 별거)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소득, 지출구조, 자산 및 부채상태 등을 비교함으로써, 유형별 남성 단독가구의 재정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경제복지 상태를 진단하며, 나아가 관련 제도와 정책 수립 및 기업의 소비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남성 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별 남성단독가구의 경제 구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남성 단독가구의 연령대에 따라 가계 경제구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남성 단독가구의 혼인상태(미혼, 이혼, 사별, 별거)에 따라 가계 경제구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남성 미혼독신가구의 연령대에 따라 가계 경제구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수집·제공한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이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전국 전 가구를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과 소비지출, 저축, 부채, 가구내구재 보유현황 등 가계자산에 관한 심층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득·소비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면접타계식과 자기기입식의 방법을 병행하여 전국의 표본조사구 내에 있는 약 27,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000년 조사 가구 수는 23,719가구이다(통계청, 2001). 통계청에서는 가계 소득과 소비지출에 관한 항목을 구성하여 매년 '가계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계조사의 경우 1인 단독가구가 표본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계 자산 및 자영업자의 소득관련 자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용가능한 2차 자료 중 연구목적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남성 1인만 단독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추출한 결과, 1,389 남성 단독가구가 연구대상으로 표집되었다.

###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남성 단독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및 주거유형을 살펴보았으며, 경제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총 가계소득 및 총 가계지출, 총자산액 및 총부채액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가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

득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총 가계지출은 크게 총 소비지출과 총 비소비지출로 나뉘었으며, 소비지출에는 식료품비, 주거·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및 기타소비지출의 세부비목이 포함되었고, 비소비지출에는 조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 지급이자 및 송금보조금 등이 포함되었다.

총 자산액은 크게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금융자산 총액은 요구불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 보험, 목돈예금 및 예탁 등 저축상품,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상품, 개인연금, 계돈 부입금, 빌려준 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고, 부동산 총액은 보유 부동산 평가액, 전세보증금 및 월세보증금 등을 합친 금액이다. 총 부채액은 금융기관 대출, 직장대출, 사채,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계단 후 불입할 총액, 외상 및 할부액 등 다양한 부채유형별 보유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가계소득과 지출, 자산 및 부채 자료는 모두 연간 금액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단독가구의 연령대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 집단을 20대, 30대, 40대, 50대 및 60대 이상의 다섯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남성 단독가구의 혼인상태, 즉 단독가구를 형성하게 된 원인이 미혼인지, 이혼인지, 사별인지 혹은 배우자가 있으나 별거 중인지에 따라 네 집단을 분류한 후,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구조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성 단독가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혼 남성 독신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연령대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구조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각 연구 문제에서 제시된 집단간 비교분석을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ANOVA 분석을 적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남성 단독가구의 일반적 특성

남성 1인만으로 구성된 1,389 남성단독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 남성의 평균 연령은 43.7세였고, 30대 남성이 39%, 40대 남성이 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단독가구를 구성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는 혼인상태 변수를 살펴보면, 미혼이 전체 조사대상의 6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혼 및 사별로 인한 독신이 각각 14%와 9.5%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독가구를 형성하여 별거 중인 가구도 12%에 달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단독가구(n= 166) 중에서 78% 가량(n=130)은 자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별거 사유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별거한 이유는 대개 배우자 취업 및 기타 이유로 응답했고, 자녀와 별거한 이유는 자녀학업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41.5%가 고졸, 25%는 중졸 이하, 34%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여주었으며, 43%가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직도 26%에 달했다. 남성단독가구 남성의 교육수준과 직업 분포는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전체 조사대상인 23,719 가구의 가구주 특성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sup>1)</sup>, 주거유형의 경우에는 눈에 띄는 차이를

1)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전체 조사대상 (23,719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33%, 고졸 40%, 2년

보여주었다. 즉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54%가 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15% 정도에 불과한 반면, 남성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자가 보유율이 16%에 불과했고 월세 비율은 46%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남성단독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1,389)

		빈 도 (%)	비 고
만연령	20~29세	161(11.6)	평균 연령: 43.67세
	30~39세	545(39.2)	
	40~49세	297(21.4)	
	50~59세	166(12.0)	
	60세 이상	220(15.8)	
혼인상태	미혼	893(64.3)	배우자 & 자녀 있음 : n=130 - 배우자별거사유: 취업 57, 기타 109 - 자녀별거사유: 취업 27, 학업 69, 기타 34
	배우자있음	166(12.0)	
	사별	132 (9.5)	
	이혼	198(14.2)	
교육수준	중졸이하	346(24.9)	
	고졸	577(41.5)	
	2년제 대졸이상	466(33.6)	
직업	전문관리·전문기술직	183(13.2)	- 근로자: 863 (62.1) - 자영업자: 162 (11.7)
	사무·서비스·판매직	239(17.2)	
	기능직·단순노무직	603(43.4)	
	무직	364(26.2)	
주거유형	자가	222(16.0)	
	전세	407(29.3)	
	월세	644(46.4)	
	기타	116 (8.3)	

<표 2>는 남성단독가구의 경제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 및 지출, 자산과 부채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전체대상인 23,719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비교한 결과이다. 남성단독가구의 연간 총 가계소득은 1,465만원이었고, 이의 71%에 해당하는 1,044만원이 근로소득이었으며, 사업소득 184만원(13%), 이전소득 168만원(11%)이 그 뒤를 이었고, 재산소득은 매우 미약한 수준(2.6%)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중 12%가량이 자영업자였는데, 이들의 사업소득을 따로 산정한 결과는 1,471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유형별 가계소득의 분포를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남성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았다.

남성단독가구의 연간 총 가계지출액은 1,22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약 908만원(74%)을 소비지출에, 약 312만원(26%)을 비소비지출에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가구가

제 대졸 이상 27%였으며, 직업분포는 전문관리·전문기술직 16%, 사무·서비스·판매직 25%, 기능직·단순노무직 35%, 무직 24%로 나타났다.

총 가계지출액의 18%만을 비소비부문에 지출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및 연금기여금, 사회보험 및 지급이자, 송금보조금 등을 포함하는데, 남성단독가구의 경우 송금보조금의 평균액이 185만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 주목할만 하다. 남성단독가구의 소비지출 평균액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총 소비지출의 24%에 해당하는 214만원을 식료품비에 지출했고, 총 소비지출의 21%를 교통·통신비(189만원)에, 그리고 16% 가량은 주거·광열·수도비와 기타소비지출비목에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조사대상가구의 소비지출 구성비와 비교해 볼 때, 주거·광열·수도비와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은 큰 반면, 교육비와 보건의료비 등은 다소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총자산액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금융자산 총액은 949만원이었고, 부동산 총액은 2,481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부채액 평균은 413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표 2> 남성단독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만원, %)

	남성단독가구 (n=1,389)	전체조사대상 (n=23,719) <sup>a)</sup>
	평균 (구성비)	평균 (구성비)
총가계소득	1,465.3(100.0)	2,639.7(100.0)
근로소득	1,043.8(71.2)	1,429.2(54.1)
사업소득 <sup>b)</sup>	183.7(12.5)	752.8(28.5)
(자영업자)	(1,470.6 <sup>c)</sup> )	(2,646.6 <sup>d)</sup> )
재산소득	37.3(2.6)	142.1(5.4)
이전소득	167.7(11.4)	182.5(6.9)
기타소득	32.8(2.3)	133.1(5.0)
총가계지출	1,220.0 (100.0)	2,084.1 (100.0)
총소비지출	908.3 (100.0) (74.4)	1,701.1(100.0) (81.6)
식료품비	214.4(23.6)	429.5(25.3)
주거·광열·수도비	148.4(16.3)	180.7(10.6)
가구집기·가사용품	35.1(3.9)	85.0(5.0)
피복·신발	49.6(5.5)	97.1(5.7)
보건의료비	27.3(3.0)	77.5(4.6)
교육비	43.9(4.8)	203.6(12.0)
교양·오락비	54.7(6.0)	83.7(4.9)
교통·통신비	188.7(20.8)	292.9(17.2)
기타소비지출	146.1(16.1)	251.2(14.8)
총비소비지출	311.7 (25.6)	383.0 (18.4)
평균소비성향 <sup>e)</sup>	78.7	75.4
총자산액	3,429.5(100.0)	10,467.4(100.0)
금융자산 총액	948.5(27.7)	2,122.6(20.3)
부동산 총액	2,481.0(72.3)	8,344.7(79.7)
총부채액	412.6	837.5

<sup>a)</sup>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전체 조사대상가구 (n=23,719)

<sup>b)</sup> 사업소득에 농·축림·어업소득 포함

<sup>c)</sup> 자영업자(n=162)의 사업소득만 따로 계산, <sup>d)</sup> 자영업자(n=6,037)만 따로 계산

<sup>e)</sup> 평균소비성향 = (총소비지출/가처분소득) = [총소비지출/(총가계소득-총비소비지출)]

## 2. 남성단독가구의 연령별 특성 비교

독신가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젊은 세대의 독신과 노인독신 간에 사회경제적으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며,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만으로 구성된 단독가구의 경우에서도 연령대별로 상이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미혼, 유배우자, 사별 및 이혼 등 단독가구 형성 원인과 연령대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같은 미혼독신이라고 하더라도 20대와 40대가 차이를 보일 것이고, 같은 사별독신이라고 하더라도 40대와 60대 이상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를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다음 절에서는 미혼, 유배우자, 사별 및 이혼 등 단독가구 형성 원인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를 시도하였다.

각 연령대 별로 남성단독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및 주거유형의 분포는 모두 각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혼인상태는 연령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20대 남성단독가구(99%)와 30대 남성단독가구(95%)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미혼이었고, 40대도 60% 가량이 미혼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배우자가 있으나 별거 중인 상태는 50대(33%)와 60대 이상 집단(25%)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별로 인해 남성 단독가구가 된 경우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고(54%), 이혼으로 인해 단독가구를 형성한 경우는 50대가 45%, 40대가 24%, 그리고 60대 이상이 18% 순으로 나타났다. 사별독신의 경우 60대 미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0세 미만에 사별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60세 미만에 사별한 남성들은 재혼을 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60세 이상 남성노인 단독가구에서 이혼과 별거의 비율을 합치면 43%에 달하는데, 이는 소위 황혼 이혼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0대와 50대에서 배우자가 있으나 별거 중인 남성 단독가구의 경우, 별거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앞서 <표 1>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별거 중인 가계의 53%가 자녀학업을 별거사유로 응답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40대와 50대 남성 단독가구 중에는 기러기 아빠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1인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남성의 교육수준 분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6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64%), 고졸의 경우에는 집단별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20대~40대 사이에서 많았으며, 2년제 대졸 이상은 2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단독가구 남성의 교육 수준이 낮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능직 혹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40대 남성이 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50대(55%)와 30대(44%)가 그 뒤를 이었다. 사무,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30대에서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의 58%, 60대 이상의 61%가 무직으로 조사되었다. 연령 집단별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6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20대, 40대, 50대는 과반수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 60대에서 가장 높았고(46%), 전세에 거주하는 비율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38%).

<표 3> 연령별 남성단독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N= 1,389)

	20대 (n=161)	30대 (n=545)	40대 (n=297)	50대 (n=166)	60대이상 (n=220)	$\chi^2$
혼인상태						
미혼	160(99.4)	519(95.2)	178(59.9)	29(17.5)	7 (3.2)	1203.0 ***
배우자있음	1 (0.6)	13 (2.4)	44(14.8)	54(32.5)	54(24.5)	
사별	-	-	4 (1.3)	9 (5.4)	119(54.1)	
이혼	-	13 (2.4)	71 (23.9)	74(44.6)	40(18.2)	
교육수준						
중졸이하	4 (2.5)	32 (5.9)	90(30.3)	79(47.6)	141(64.1)	400.5 ***
고졸	70(43.5)	272(49.9)	136(45.8)	55(33.1)	44(20.0)	
2년제 대졸이상	87(54.0)	241(44.2)	71(23.9)	32(19.3)	35(15.9)	
직업						
전문관리·전문기술직	6 (3.7)	90(16.5)	36(12.1)	30(18.1)	21(9.5)	32.6 ***
사무·서비스·판매직	17(10.6)	128(23.5)	55(18.5)	18(10.8)	21(9.5)	
기능직·단순노무직	45(28.0)	238(43.7)	185(62.3)	92(55.4)	43(19.6)	
무직	93(57.7)	89(16.3)	21(7.1)	26(15.7)	135(61.4)	
주거유형						
자가	4 (2.5)	41(7.5)	44(14.8)	33(19.9)	100(45.5)	231.6 ***
전세	54(33.5)	209(38.3)	79(26.6)	26(15.7)	39(17.7)	
월세	92(57.2)	253(46.4)	153(51.5)	87(52.4)	59(26.8)	
기타	11 (6.8)	42(36.2)	21 (7.1)	20(12.0)	22(10.0)	

<표 4>는 각 연령대 별로 남성단독가구의 경제구조를 비교한 결과이다. 총 가계소득은 30대~50대에 비해 20대(1,094만원)와 60대(1,024만원)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총 가계소득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역시 같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사업소득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와 50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재산소득은 50대와 6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 남성단독가구에서 가장 높았으며(437만원), 그 다음으로 60대 가구(265만원)가 높게 나타났는데, <표 4>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20대의 경우 사적보조금, 특히 부모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대부분이었으며, 60대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수혜 및 자녀로부터의 사적보조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총 가계소득과 마찬가지로, 총 가계지출액 역시 30대~50대에 비해 20대(1,079만원)와 60대(977만원)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총 소비지출액 수준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60대 남성단독가구의 총 소비지출액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 20대의 총 소비지출액은 50대나 60대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조세나 연금기여금, 사회보험 및 송금보조금 등의 비소비지출(89만원) 비중이 낮고, 총 가계지출의 92%(989만원)를 소비지출에 할당하는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총 가계지출의 72%(951만원)와 52%(741만원)만을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령대 별로 평균소비성향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20대 남성 단독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즉 평균소비성향이 0.98 [989.4/(1,094.3-89.1)]로 가장 높았다. 60대 역시 평균소비성향이 0.93으로 매우 높았다.



<표 4> 연령별 남성단독가구의 경제구조 비교

(N= 1,389, 단위: 만원)

	20대 (n=161)	30대 (n=545)	40대 (n=297)	50대 (n=166)	60대이상 (n=220)	F-value
총가계소득	1,094.3 a	1,567.4 b	1,704.7 b	1,645.4 b	1,024.6 a	20.6***
근로소득	593.2 a	1,243.3 b	1,263.2 b	1,177.9 b	481.6 a	30.3***
사업소득	19.9 a	134.8 b	329.7 c	285.2 c	130.2 b	10.6***
재산소득	2.7 a	15.2 a	31.5 a	95.9 b	81.4 b	7.3***
이전소득	436.8 d	141.5 b	55.5 a	64.2 a	265.2 c	31.7***
기타소득	41.6 ab	29.1 a	21.9 a	14.9 a	63.6 b	2.5*
총가계지출	1,078.5 a	1,241.9 ab	1,323.4 bc	1,422.2 cd	976.9 a	8.2***
총소비지출	989.4 c	1,017.0 c	951.0 c	741.5 b	647.6 a	31.3***
식료품비	203.2 b	229.5 c	239.5 c	188.9 b	170.9 a	22.4***
주거·광열·수도비	144.9 ab	153.9 b	157.5 b	145.8 ab	127.0 a	3.6**
가구집기·가사용품	39.1 bc	47.3 c	32.8 b	20.3 a	15.9 a	13.4***
피복·신발비	49.7 b	63.7 c	45.7 b	39.6 b	27.5 a	20.4***
보건의료비	16.4 a	18.0 a	19.8 a	45.6 b	54.4 b	10.9***
교육비	210.2 c	46.1 b	6.32 a	0.0 a	0.99 a	87.2***
교양·오락비	55.8 b	76.8 c	53.4 b	30.0 a	19.8 a	23.4***
교통·통신비	157.6 b	237.5 c	213.4 c	148.6 b	87.8 a	16.6***
기타소비지출	112.4 a	144.3 b	182.8 c	122.7 ab	143.4 b	8.7***
총비소비지출	89.1 a	225.0 b	372.4 c	680.6 d	329.3 bc	22.2***
총자산액	873.6 a	2,469.4 b	3,479.7 b	5,067.3 c	6,375.1 c	16.9***
금융자산 총액	303.4 a	976.1 b	1,057.6 bc	1,469.0 c	812.4 b	5.1***
부동산 총액	570.2 a	1,493.4 ab	2,422.1 bc	3,598.3 c	5,562.7 d	19.8***
총부채액	77.0 a	240.8 a	479.0 a	1,094.1 b	479.1 a	5.3***

\*p<.05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대, 이들은 소득수준에 비해 비소비지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30대, 40대와 50대는 각각 0.76, 0.71, 0.77 정도로 파악되었는데, 50대는 가계소득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소비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진 경우이다. 50대는 가계지출의 48%에 해당하는 681만원을 비소비지출 비목에 배분하고 있었는데, 세금이나 연금기여금, 사회보험 등의 비목에서는 그 액수가 30~40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송금보조금의 액수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대 남성 단독가구는 비소비지출액의 73%인 496만원을 위자료, 자녀양육비, 자녀교육비 등의 송금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다 (지면 관계상 <표 4>에는 구체적인 비소비지출 비목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출 비목별 소비지출액을 연령대 별로 비교해 보면, 식료품비, 주거·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 등 필수재 성격의 비목에서는 60대 이상 남성단독가구의 지출액이 유의하게 낮은 반면, 30대와 4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60대 이상 집단에서 주거·광열·수도비가 낮게 나타난 것은 그들의 자가 보유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50대와 60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교육비는 50대와 60대에서 거의 지출이 없는 반면, 20대 남성단독가구에서는 평균 21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30대 남성단독가구의 경우, 교육비 지출은 20대 보다 많이 낮았으나, 교양오락비 비목에서는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총 자산액은 50대와 60대 남성단독가구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50대는 금융자산 보유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고, 60대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자가 보유율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평가액이 월등하게 많아져서 총자산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총 부채액은 50대 남성단독가구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 3. 남성단독가구의 혼인상태별 특성 비교

본 절에서는 단독가구 형성 원인, 즉 미혼, 사별, 이혼인지 혹은 배우자가 있으나 별거 중인지에 따라 남성단독가구의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하였다. 물론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단독가구를 형성, 유지하는 경우와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독신이 된 경우, 그리고 일시적으로 단독가구를 형성한 경우와 독신의 삶을 완전히 수용하여 안정적으로 단독가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남성단독가구는 상이한 특성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독신기간과 자발성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열거한 네 가지의 유형에 따라 특성을 비교하였다.

<표 5>는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라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령과 혼인상태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당연한 바, 각 혼인상태별로 조사대상 남성의 평균 연령이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미혼 독신가구 남성의 평균 연령은 35.4세, 이혼과 별거 중인 남성의 평균 연령은 각각 52.7세와 54.5세, 그리고 사별 독신 남성의 평균 연령은 72.8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미혼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40대에서는 이혼이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와 별거 중인 남성가구와 미혼 독신 남성 가구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50대에서도 역시 이혼으로 인한 단독가구와 배우자와 별거 중인

가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사별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직업, 주거유형의 분포 역시 남성단독가구의 혼인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중졸 이하의 사별을 한 집단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앞서 <표 3>에서 본 것 처럼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 수준은 낮고, 사별할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고졸은 미혼, 별거, 이혼의 집단에서 모두 40% 내외를 차지했으며, 2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은 미혼과 별거 중인 남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배우자가 있으나 별거 중인 남성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능직 혹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경우 이혼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무직 비율은 사별한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사별한 남성단독가구였고, 미혼인 남성단독가구와 이혼한 남성단독가구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혼인상태별 남성단독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N= 1,389)

	미혼 (n=893)	유배우자 (n=166)	사별 (n=132)	이혼 (n=198)	$\chi^2/F$
만연령					
20-29세	160 (17.9)	1 (0.6)	-	-	1203.0***
30-39세	519 (58.1)	13 (2.4)	-	13 (6.6)	
40-49세	178 (19.9)	44 (26.5)	4 (3.0)	71 (35.8)	
50-59세	29 (3.2)	54 (32.5)	9 (6.8)	74 (37.4)	
60세 이상	7 (0.8)	54 (32.5)	119 (90.2)	40 (20.2)	
평균 (세)	35.35 a	54.46 c	72.84 d	52.68 b	1,010.4***
교육수준					
중졸이하	120 (13.4)	34 (20.5)	101 (76.5)	91 (46.0)	313.6***
고졸	405 (45.4)	71 (42.8)	23 (17.4)	78 (39.4)	
2년제 대졸이상	368 (41.2)	61 (36.7)	8 (6.1)	29 (14.6)	
직업					
전문관리·전문기술직	118(13.2)	48(28.9)	2 (1.5)	15(7.6)	53.9***
사무·서비스·판매직	176(19.7)	26(15.7)	11 (8.3)	26(13.1)	
기능직·단순노무직	401(44.9)	57(34.3)	27(20.5)	118(59.6)	
무직	198(22.2)	35(21.1)	92(69.7)	39(19.7)	
주거유형					
자가	68 (7.6)	45 (27.1)	66 (50.0)	43 (21.7)	213.0***
전세	314 (35.2)	34 (20.5)	23 (17.4)	36 (18.2)	
월세	441 (49.4)	61 (36.7)	35 (26.5)	107 (54.0)	
기타	70 (7.8)	26 (15.7)	8 (6.1)	12 (6.1)	

혼인상태 별로 남성단독가구의 경제구조를 비교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간 총 가계소득은 배우자가 있으나 별거 중인 남성단독가구에서 유의하게 많았고(2,411만원), 미혼(1,441만원)이나 이혼(1,315만원) 집단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사별 독인가구에서 유의하게 적게(663만원) 나타났다. 근로소득 평균액의 집단 간 차이는 총 가계소득의 집단 간 차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미혼이나 배우자 있는 가구, 그리고 이혼 독인가구의 경우에는 총 가계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5%, 73%, 그리고 68% 가량인 것에 반해, 사별한 남성들의 근로소득은 총 가계소득의 20%에 불과했다. 사업소득은 배우자와 별거 중인 가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재산소득은 다른 집단에 비해 미혼 집단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혼한 남성단독 가구의 이전소득은 총 가계소득의 4.8%에 불과한 63만원 반면, 사별한 남성단독가구는 총 가계소득의 43%(286만원)을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었다. 사별한 남성들은 주로 자녀로부터 사적 보조금을 받거나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조금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한 남성들의 경우에는 연금이나 사회보장 및 사적 보조금 등의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 가계지출액도 총 가계소득의 집단 간 차이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있는 가계의 총 가계지출액이 가장 높았고(2,114만원), 미혼(1,147만원)과 이혼 집단(1,151만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별 독인가구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696만원)이었다. 특히 사별한 남성 단독가구의 경우, 총 가계지출이 총 가계소득 보다 많았으며 평균소비성향도 1.06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사별 가구의 총 소비지출액과 총 비소비지출액은 각각 583만원, 113만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미혼인 남성독신들은 총 가계지출의 84%에 해당하는 967만원을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있어, 소비지출액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 단독가구는 총 소비지출액(928만원) 보다 총 비소비지출액(1,186만원)이 더 많은 특이한 지출구조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가계지출의 56% 가량을 비소비지출에 할당했는데, <표 6>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비소비지출 비목 중에서 특히 송금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즉 배우자가 있으나 별거 중인 남성 단독가구는 배우자 생활비, 자녀양육 및 교육비 등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 본인의 소비지출비목에 충분한 금액을 배분하지 못하고, 소득수준에 비해 다소 열악한 소비지출구조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소비지출비목 중에서 기타소비지출액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비목별 소비지출액을 혼인상태에 따라 비교해 보면,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사별 독신의 지출액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그들의 경제수준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비목에서 미혼, 이혼 및 별거 집단의 지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육비와 교양오락비의 경우에는 미혼 남성독신들의 지출 규모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으나 별거 중인 남성단독가구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모두에서 가장 높은 자산보유액을 보여주면서 총자산액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으며, 총부채액 역시 사별이나 미혼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이혼으로 인해 단독가구를 형성한 남성들은 금융자산 규모가 큰 반면 보유 부동산 총액은 낮았으며, 다소 많은 총부채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혼인상태별 남성단독가구의 경제구조 비교  
(N= 1,389, 단위: 만원)

	미혼 (n=893)	유배우자 (n=166)	사별 (n=132)	이혼 (n=198)	F-value
총가계소득	1,441.3 b	2,411.4 c	663.1 a	1,315.0 b	77.9***
근로소득	1,076.7 b	1,765.3 c	134.7 a	896.1 b	59.6***
사업소득	147.1 ab	332.4 c	98.9 a	257.9 bc	6.7***
재산소득	13.7 a	75.6 b	78.5 b	84.3 b	9.2***
이전소득	172.8 b	170.6 b	286.2 c	63.0 a	8.1***
기타소득	29.0 ab	55.7 b	62.5 b	10.7 a	3.3*
총가계지출	1,146.6 b	2,114.1 c	695.6 a	1,150.8 b	84.6***
총소비지출	967.2 c	928.2 bc	582.8 a	842.8 b	26.4***
식료품비	222.7 b	205.1 b	155.5 a	224.2 b	18.9***
주거광열수도비	150.4 b	153.3 b	123.7 a	152.1 b	3.0*
가구집기가사용품	40.3 c	23.1 ab	15.5 a	34.4 bc	8.6***
피복신발비	55.4 c	57.1 c	17.2 a	38.8 b	22.9***
보건의료비	17.9 a	52.2 b	53.1 b	31.5 a	13.2***
교육비	66.7 b	7.9 a	0.02 a	0.98 a	22.5***
교양오락비	63.6 c	42.9 b	14.0 a	51.9 bc	14.9***
교통통신비	207.9 b	203.8 b	71.0 a	168.4 b	11.9***
기타소비지출	142.5 a	182.9 b	132.8 a	140.5 a	4.5**
총비소비지출	179.4 a	1,185.9 c	112.9 a	308.0 b	153.4***
총자산액	2,246.0 a	8,920.5 c	4,284.8 b	3,593.5 ab	37.8***
금융자산 총액	844.0 b	1,541.3 c	321.8 a	1,340.5 c	8.6***
부동산 총액	1,402.0 a	7,379.2 c	3,963.0 b	2,253.1 a	42.5***
총부채액	217.9 a	935.1 b	578.0 ab	742.0 b	6.5***

\*p<.05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4. 남성 미혼독신가구의 연령대별 특성 비교

본 연구에서 남성단독가구의 혼인상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의 64%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혼인율이 감소하고 초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시적(temporary) 혹은 안정적(stable)으로 독신가구를 형성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박정운·김진희, 2002), 이러한 추세가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와 이에 따른 경제력 향상이 미혼 여성들의 결혼을 미루고, 독신을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독신가구에 대한 관심은 주로 독신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독신 여성의 증가는 결국 비자발적(involuntary)으로 독신이 되는 남성인구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남성 미혼 독신가구의 경우 자발성 여부에 따라 사회경제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독신의 자발성 여부와 독신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20대 미혼 남성독신가구 중에는 앞으로 결혼을 할 계획이 있지만 직업생활이나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위해 당분간 혼자 지내는 경우, 즉 자발적이고 일시적인 독신가구가 다수일 것이다. 반면 40대 이상의 미혼 남성독신들은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간에 이미 독신생활에 적응하고 이를 수용하는 안정적인 유형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사대상 중에서 미혼 남성독신 893가구를 연령에 따라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이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사회적 구학적 특성과 경제구조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교육수준과 직업, 주거유형 분포는 20대, 30대와 40대 이상 미혼 독신남성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40대 이상 미혼 중에는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20대 미혼 중에는 2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이 높은 지분을 차지했다. 전문관리·전문기술직이나 사무·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30대 미혼 남성이 높았고, 기능직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40대 미혼남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미혼남성 단독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다수의 미혼 남성독신들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 이상 미혼들은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총 가계소득 수준은 30대와 40대 이상 미혼 독신남성가구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다만 20대 독신가구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20대 미혼남성의 58% 가량이 무직이기 때문에 가계소득 평균액이 낮을 뿐 아니라, 가계소득 중 40% 이상을 이전소득, 그 중에서도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받는 사적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30대 미혼 독신남성은 근로소득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이상 미혼 독신남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계지출은 30대 독신남성가구에서 유의하게 높았는데(1,226만원), 총 가계소득의 79% 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40대 이상 집단 간에 총 가계지출액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평균소비성향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40대 이상 독신남성가구의 경우 총 가계지출이 총 가계소득의 70%가량이며,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즉 평균소비성향이 0.66에 불과한 반면, 20대 독신남성들은 가계소득의 99%를 지출했으며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고, 평균소비성향이 0.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비목별 소비지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주거·광열·수도비와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표 7> 남성 미혼독신가구의 연령대별 특성 비교

(N= 893)

		20대 미혼 (n=160)	30대미혼 (n=519)	40대이상 미혼 (n=214)	$\chi^2/F$
교육 수준	중졸이하	4 (2.5)	30 (5.8)	86 (40.2)	181.3***
	고졸	70 (43.7)	256 (49.3)	79 (36.9)	
	2년제 대졸이상	86 (53.8)	233 (44.9)	49 (22.9)	
직업	전문관리·전문기술직	6 (3.8)	89 (17.1)	23 (10.8)	18.6***
	사무·서비스·판매직	17 (10.6)	120 (23.1)	39 (18.2)	
	기능직·단순노무직	45 (28.1)	225 (43.4)	131 (61.2)	
	무직	92 (57.5)	85 (16.4)	21 (9.8)	
주거 유형	자가	4 (2.5)	35 (6.7)	29 (13.6)	24.3***
	전세	53 (33.1)	201 (38.7)	60 (28.0)	
	월세	92 (57.5)	242 (46.6)	107 (50.0)	
	기타	11 (6.9)	41 (7.9)	18 (8.4)	
총가계소득		1,089.5 a	1,550.4 b	1,429.8 b	22.5***
근로소득		585.7 a	1,244.3 c	1,037.5 b	39.3***
사업소득		20.1 a	120.2 b	307.0 c	14.8***
재산소득		2.4 a	13.5 b	22.7 c	8.3***
이전소득		439.5 c	141.4 b	49.8 a	40.6***
기타소득		41.9	28.1	21.6	0.5
총가계지출		1,078.4 a	1,225.8 b	1,005.7 a	11.9***
총소비지출		989.9 b	1,015.2 b	833.6 a	11.4***
식료품비		203.4 a	229.8 b	220.1 ab	4.6**
주거광열수도비		144.8	153.1	147.7	0.6
가구집기기사용품		39.3 b	46.8 b	25.2 a	7.9***
피복신발비		49.8 b	64.1 c	38.6 a	16.6***
보건의료비		15.7	17.0	21.5	0.4
교육비		211.5 c	48.4 b	2.8 a	90.6***
교양오락비		55.0 a	74.1 b	44.5 a	12.8***
교통통신비		158.2 a	238.3 b	171.2 a	7.4***
기타소비지출		112.3 a	143.7 b	162.0 b	7.1***
총비소비지출		88.4 a	210.5 b	172.1 b	15.3***
총자산액		864.3 a	2,434.3 b	2,822.5 b	11.8***
금융자산 총액		299.8 a	977.6 b	927.1 b	10.5***
부동산 총액		564.4 a	1,456.8 b	1,895.4 b	6.3**
총부채액		77.4 a	214.6 b	331.0 b	5.2**

\*p<.05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20대 독신가구는 30대 이상 독신가구에 비해 식료품비와 기타 소비지출비는 유의하게 적게 지출하는 반면, 교육비 지출액이 월등하게 많았다. 30대 독신가구는 교육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목에서 다른 연령대 독신가구에 비해 많은 액수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의 지출규모는 다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40대 이상 독신 남성들은 평균소비성향이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낮는데, 특별히 지출을 많이 하는 비목 없이 거의 모든 비목에서 세 집단 중 가장 적은 지출규모를 보여주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보유액, 그리고 총 부채액은 20대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적었고, 30대와 40대 이상 독신 남성 가구 간에는 특별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 IV. 결론 및 논의

남성 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현 상태를 파악하고, 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라 남성 단독가구의 경제구조를 비교 분석한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남성 단독가구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며, 그들을 위한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프로그램 입안자 혹은 남성 단독가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마케터들에게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논의를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 단독가구의 경제구조는 독신 남성의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20대 남성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58%가 무직이었고, 총 가계소득에서 이전소득, 그 중에서도 부모로부터 받는 사적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총 가처분소득의 98%를 소비지출비목에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20대 남성 단독가구의 경제적 자립 능력은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전체 남성 단독가구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20대 독신남성들의 시장노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소득·지출관리 및 자산관리 전반에 관한 재무교육을 통해 경제적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령대별 남성단독가구의 지출 패턴을 살펴볼 때, 50대는 가계지출의 48%를 비소비지출 부문에 할당하고 있었으며, 특히 송금 보조금이 매우 큰 비중을 나타냈다. 즉, 이혼으로 인해 독신이 된 남성에게는 위자료, 자녀양육비 등의 부담이, 배우자가 있으나 별거 중인 남성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가족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의 부담이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남성 본인을 위한 소비지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혼인상태별 남성 단독가구의 지출패턴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 단독가구는 총 가계지출의 56%를 비소비지출에 배분함으로써, 소비지출액 보다 비소비지출액이 더 많은 특이한 지출구조를 보여주었다.

셋째, 비목별 소비지출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필수재 성격의 비목에서는 30대와 4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수준을 보여주었고, 보건의료비의 경우 50대와 6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육비는 50대와 60대에서 지출이 거의 없는 반면, 20대 남성단독가구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났고, 30대는 교육비 보다는 교양오락비 지출액이 많았다. 20대와 30대 남성들은 인적자본 투자를 위해 지출을 많이 하며, 50대와 60대는 불가결하게 보건의료비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



의 미혼 독신남성은 식료품비를 유의하게 적게 지출하는 반면, 교육비 지출액이 많았고, 30대 미혼 독신남성은 20대나 40대 이상 미혼 독신 남성에 비해 대부분의 비목에서 지출규모가 컸고, 특히 피부·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에서 월등한 구매력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연령대별 남성 단독가구의 소비패턴이 상이한 차이를 보이므로, 각 집단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각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활용하는 마케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비목별 소비지출액을 혼인상태에 따라 비교해 보면, 사별로 인해 독신이 된 남성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은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지출액이 유의하게 낮았고, 총 가계지출이 총 가계소득 보다 많았으며, 소비지출액도 가처분소득 보다 많아 평균소비성향이 1.06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집단은 사별로 인해 독신이 된 60대 이상의 노인단독가구인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독거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보장,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노후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금융정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 전체 남성 단독가구의 16%만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20~50대는 자가 보유율이 매우 낮은 반면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독신들이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직장 때문에 가족과 별거하여 남성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주거 편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직장 단위에서 기능적이고 편리한 주거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등 피고용편익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잦은 이동으로 인해 자가 마련의 기회를 놓치는 남성 단독가구의 경우, 장기적인 자산 축적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조화로운 자산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민일보(2004년 8월 25일자). 늘어나는 싱글족. '당당한 비혼' 시선 달라져.
- 매일경제(2004년 8월 31일자). 일 중장년층 소비부활.
- 박정윤·김진희(2002). 독신가족의 가족복지 욕구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17-31.
- 성지미·이윤정(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1-130
- 심영(2000). 단독가계 노인 소비자의 소득, 자산, 소비지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19.
- 심영(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97- 208.
- 심영(2003). 나 홀로의 삶, 그 선택과 특성.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제 6회 심포지엄 자료집**, 1-18.
- 여윤경(2003).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패턴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12.
- 연합뉴스(2005년 10월 27일자). 남성 독신이 더 외롭고 덜 행복해.
- 유영주 외 6인(2000). **현대 결혼과 가족**. 신광출판사.
- 이윤정·김순미(2003). 남녀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소비지출의 영향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2(12), 93-106.
- 통계청(2002). 2000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집계결과-여성, 아동, 고령자, 1인가구 부문.
- 통계청(2001).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개요. [www.nso.go.kr](http://www.nso.go.kr)
- U.S. Census Bureau(2002). United States Census 2000 Summary File. [www.census.gov](http://www.census.gov)